

“기후변화 대응 3억달러 지원… ‘녹색 사다리’ 역할 할 것”

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국제해운 탈탄소 노력 매우 중요 녹색 해운항로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분야 기술 협력에 3억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G20 회의 첫 시간에 나온 것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수소 산업에서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도국과 협력·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운의 탈탄소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다 위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인 라즈가트를 방문해 G20 정상들과 함께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탄소중립, 즉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라는 열쇠는 녹색 해운 항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3억달러는 녹색기후기후기금(GCF)에 쓰인다. 녹색기후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한국은 지난 2013

년에 1억달러, 2020~2023년에 2억달러를 공여한 바 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기후변화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녹색 해운 항로’ 구축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항만 인프라 구축 등의 ‘녹색 해운 항로’ 비전도 제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 조선 산업이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날 저녁에 열린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여해 각국 정상과 교류했다.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올라프 솔트 독일 총리 등 핵심 파트너국 정상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지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3국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면서 “우리의 협력으로 3국 국민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3분기 중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 지속적 ‘수입허용’

해수부, 모두 오염수 방류 이전 생산 8개 현 수산물은 ‘수입금지 유지’
‘가공품’ 수입기준 명확히 공개 안돼 방류 이후 생산품 수입 정책 미공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

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후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일(240kg),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실

시됐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물가공품(300kg)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kg(7월31일 생산), 576kg(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방사능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kg)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kg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2025년 9월27일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품에서 방사능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

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29 모두 kg당 100 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수급조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도 수입·통관을 허용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와 인접한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中 견제’ IPEF 5차 공식협상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무역·청정경제 등 연내 타결 추진 美·日·호주·뉴질랜드 등 14국 참석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

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이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

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면 ‘KB금융지주 차기회장’서 계속

2030년 글로벌 수익 30% 2040년 40%로 확대 목표

업계 안팎에선 양 후보자가 인수합병(M&A)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건축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 등으로 다수의 증권 및 보험사 인수합병 매물이 등장할 수 있어서다.

현재 리딩금융을 앞다투는 신한금융의 비은행 비중은 약 40% 수준이다. 앞으로는 비은행 비중에 따라 리딩금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과거 LIG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한 경험을 살려 비은행 인수합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진출 확대

아울러 글로벌 진출 확대는 또 다른 과제다. 국내에서 추가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을 넓혀 수익규모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B금융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비율을 30%, 2040년까지 40%로 높일겠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해외 영업점(지점·사무소·현지법인)은 지난 3월 기준 총 106개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영업점은 15개로 4개은행 중 가장 적다.

양 후보자는 은행부문에 치중돼 있던 글로벌 사업을 IB, 리테일, PB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은행과 경쟁하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양 후보자에게 전문화된 비은행 부문(캐피탈, 보험, 카드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흥아시아 뿐만 아니라 서구권의 선진시장까지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도 예상된다.

양 후보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이사회에 회장후보자로 추천되며 11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115@